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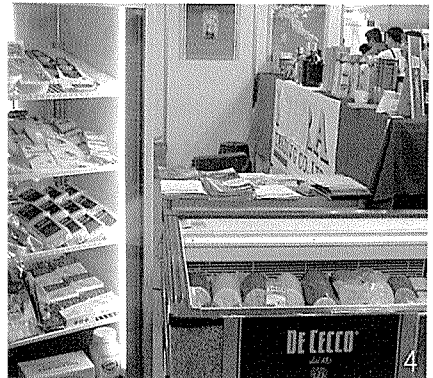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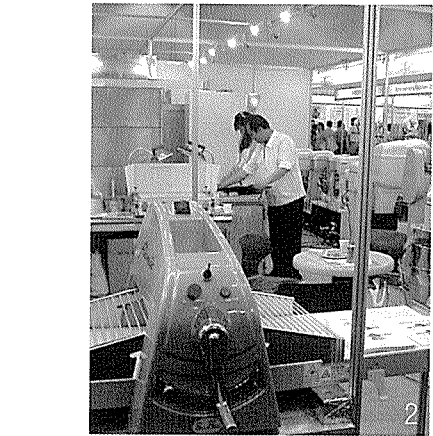
제12회 부산국제식품전시회

식품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부산국제식품전시회’가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열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식품전은 10개 국에서 150개 업체가 참가해 성황리에 끝마쳤다. 식품관, 식품기계관, 포장기계관, 외식프랜차이즈관으로 나누어 열린 전시회는 많은 참관객들에게 유용한 식품정보를 전달했다.

기획_박소희 기자 · 글_김시은 명예기자 · 사진_김미진 명예기자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MBC 부산문화방송이 주최하고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2회 부산국제식품전시회가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최됐다.

‘아름다운 용기에 새로운 식품문화 창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10개 국 150개 업체에서 1천 500여 점의 우수식품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통식품, 가공식품, 주·음료, 제과·제빵, 식품원·부재료, 주방용품, 식품가공설비, 식품포장기기 등의 전시와 함께 외식창업정보전이 함께 열려 식품개발동향은 물론 외식관련 창업 아이템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용한 전시회였다.

전시관을 식품관, 식품기계관, 포장기계관, 외식업프랜차이즈관으로 나누어 열린 이번 전시회는 제과·제빵 관련 부스의 참가도 눈에 띄었다. 마랭드블라제에서 명칭을 바꾸고 처음으로 참가한 Seoul Food는 녹차 크루아상, 애플파이, 버터 크루아상, 베이글 등 신제품을 전시하고 적극 홍보했다. 제 1회 대회부터 매년 참가한 신진공업사 로터락 오븐, 소형 파이롤러, 설탕 공예도구 등 일반인들에게 기계를 설명하고 홍보키팅용으로 사용가능한 점을 홍보했다. 피자치크는 콜로렐라를 넣어 만든 피자를 만들어 시식하는 코너를 마련해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외에도 (주)한바람, (주)한국하인즈, 애니텍(주), 우진산업, (주)라셀르, HRS, 대영제과제빵 기계공업 등 제과제빵 업체와 관련 기계업체가 참가해 제품 전시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주)와인만들기가 실시한 와인 시연 및 시음행사와 (주)고공에서 실시한 전주 비빔밥 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대부분의 전시회가 서울에 편중되어 개최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2의 도시이며 APEC 개최지인 부산에서 매년 열리는 부산국제식품전은 국내외의 먹을거리에 관한 요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방 전시회를 활성화시키고 영남지역 식품관련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전시회로 발돋움했다. 🍷

1 국내외 10개 국 150개 업체에서 1천500여 점의 우수식품관련업체가 참가한 제12회 부산국제식품전. 2 1회 전시회부터 매년 참가한 신진공업사는 로터락 오븐, 소형 파이롤러, 설탕공예도구 등을 전시했다. 3 Seoul Food는 녹차 크루아상, 애플파이, 버터 크루아상, 베이글 등 신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했다. 4, 5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갖가지 치즈, 올리브유, 와인 비네거, 피클 등을 전시했다.